

본문 : 요한복음 17 장 1-13 절

제목 : 하나되게 하소서

1.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17 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16 장 마지막 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응시한 것이겠죠.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조지어천(照之於天)”이란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하늘의 조명에 비추어 사물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늘 빛으로 사물을 조명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 눈을 드시고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마디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입니다. 무슨 때가 온 것인가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떠오르는 시가 있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Herbsttag)”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들판 위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영글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 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어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엽 뒹구는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시인은 여름의 시간이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한 듯합니다. 열매가 빨리 무르익었으면 좋겠는데, 햇별이 조금만 더 내리 쬐면 열매가 더 성숙해질 것 같은데 시간이 가는 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시인은 지나가는 시간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쇠락해 가는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맛이 단맛으로 바껴가게 될 가을 열매들처럼 나이들어 더욱 성숙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예수님도 짧은 맛 그대로 남겨져 있는 미성숙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떠나기가 못내 아쉬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 속에서 느껴집니다.

2. 온전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절과 2 절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절은 1 절과 연결하기 위해 just as, according as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 이유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절을 해달라는 간구의 이유가 2 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1 절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이유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돌리게 해달라는 같은 말의 반복인 듯 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이유가 2 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목적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2 절부터 거꾸로 해석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과업을 100% 완수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극대값을 바치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 본문과 가장 닮은 본문이 빌립보서 2 장 6-9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순종의

극대값을 바친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지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아들 예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 절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만민을 통치할 권세를 위임 받은 왕이셨고 통치의 목적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는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이 종처럼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이 순간을 감내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나 움츠려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민을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찌거기가 되고, 만민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만민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이 친히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권세를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이의 배를 채우고 다른 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야말로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3. 권세의 목적은 영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100% 순종한 아들 예수님께 세계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의 목적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고 플라톤이 말한 바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The Republic> 1 권의 후반부에 트리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말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음 말로 반박을 합니다. “참된 통치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치한다. 통치란 예술(Techne)이며, 그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그 대상의 이익이다.” 통치자가 통치권, 즉 권세를 갖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권세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나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 계속 생명이 감소됩니다.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오염된 공기가 대기에 가득한 것과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오염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생명이 사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만민을 영생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목적과 내용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다스림이란 억압하고 군림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섬김을 통해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뭉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잔치에 초대되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지 알게 되고, 나아가 다른 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 영생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날에 엿가락 늘어지듯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T. S. Eliot 의 시 <황무지>에 쿠마의 무녀(Cumaeen Sybil)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쿠마라는 지역에 여사제(sybil)가 있었는데 아폴론 신이 사랑에 대한 대가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폴로 신에게 한 줌의 모래를 들고 와서는 손에 들고 있는 모래만큼 살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랜 생명'만을 요청했지, 그에 따르는 젊음을 요구하지 않았죠. 무녀는 오래 사는 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젊음은 지키지 못했죠. 그리하여 그녀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쪼글어 들어 항아리에 보존되다가, 결국 그녀의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시간의 무한정한 연장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본문은 영생을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알다라는 동사 Ginosko(γινώσκω)가 가정법(subjunctive mood)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목표를 나타내는 문법형태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공감하다, 교통하다, 깊게 교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공감하고 그 세계 속으로 dive into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세계에 동참해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일회적으로 얻어지는 명사형태가 아니란 말이지요. 구원의 목표인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그 드라마틱한 교감을 이해하고 그 세계 속으로 우리도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깊은 교제와 교감의 세계로 초대되어 하나님과의 사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5. 큰 세계의 일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아는 것이라면 알지 못하는 무지가 영생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시작됩니다. 13 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나누는 극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제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미로운지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만민에게 영생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게 될 권세와 다스림의 목표 또한 철저한 섬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몫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양으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요 10:10),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삶을 소중히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은 내가 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큰 세계 속에 속해 있음을 알기에 내 인생이 쓰고 고달플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6. 하나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공생애 3 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 왔던 생명을 나누고 소진시키는 그 과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고자 하니 힘과 용기를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우주적 드라마와 통치 원리를 터득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으니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방식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강조하셨는 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존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생명을 소진하고 선물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됨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탐욕과 경쟁의 포기, 지배와 폭력의 포기,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선물입니다. 가진 자, 유력한 자, 많이 배운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 더 많은 존엄을 교회에서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오히려 내 모든 권세와 재능을 다 바쳐서 겸손하게 하나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에게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하나됨을 주도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하나되지 못합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권이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민이 더이상 탐욕과 교만과 경쟁심으로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삶과 피를 나누고 나를 선물로 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